

광주시, 3년 연속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 도전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 157곳으로 확대



광주시가 3년 연속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0' (제로)에 도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 2017년 6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2018년과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3년 연속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 및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스쿨존 주변 신호등 주를 노란색으로 도색해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유도하는 노란신호등 설치, 차량 감속 유도를 위한 고인식 횡단보도 설치,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발광형 표지판 및 보행자 울타리 설치 등의 내용을 담는다.

시는 지난해까지 8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 표준모델을 설치했다. 올해는 70개 학교 인근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과속이나 불법주정차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유발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추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CCTV 157대

를 설치한데 이어, 2022년까지 157개 초등학교에 96대를 추가 설치해 총 253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도 관할 자치구와 함께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한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역시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통학로가 유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30여 개 초등학교에서 100여 명의 지킴이가 활동한다.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 체험교육도 활성화한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들의 교통안전체험 공간으로 연간 1만 8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미니열차를 교체했다. 올해는 역사를 리모델링해 어린이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

“숲이 아름다운 전남” 계절별 명품숲 12곳 담양 만성리 대숲 최우수상

전남도는 휴식과 힐링, 여행 명소를 알리고 관광자원화를 위해 2020년에 가뵤야 할 블루 이코노미 명품숲 12개소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숲은 전남도가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발굴한 곳이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담양 만성리 대숲은 죽녹원 뒤편에 위치해 있다. 사철이 아름답지만 설경이 특히 아름다워 1월에 방문해야 제격이다. 2.4헥타르(ha)에 맹종죽이 짙게 깔려 있는 대숲은 보는 이의 감탄을 연발케 한다.

이 곳은 지난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4호로 지정됐으며 담양군이 죽녹원에 버금가는 새 명소로 키우기 위해 보존·관리하고 있다.

우수상에 선정된 ‘신안 송공산 애기동백숲’은 신안 압해읍 송리 일원 3.6ha의 완만한 동산이다. 20년생 애기동백 1만여 그루가 있어 꽃이 만개하는 12월이 방문 적기다. 지역 축제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인근에 분재공원도 있다.

또한 계절별 가장 아름다운 명품숲으로 겨울에는 이를 포함해 2월에 가기 좋은 ‘보성 응치 용반 전통마을숲’이 선정됐다.

봄인 3월에는 ‘강진 백련사 동백숲’, 4월 ‘화순 세갈재’, 5월 ‘보성 일립산 산철쭉 평원’이 선정됐다.

여름에는 6월 ‘고흥 팔영산 편백숲’, 7월 ‘진도 관대도 해송숲’, 8월 ‘여수 봉화산 힐링숲’, 가을에는 9월 ‘구례 마산 사색의 숲’, 10월 ‘강진 초당림’, 11월 ‘화순 동복 연두리 숲정자’가 있다.

선정된 명품 숲은 홍보 달력과 포스터로 제작해 주요 관광지, 중앙 부처, 다른 시·도 등에 홍보될 계획이다.

보성군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맞춰 방문하면 남도의 빛깔에 물든 아름다운 숲을 만끽할 수 있다”며 “남도의 명품숲을 계속 발굴, 조성해 ‘숲속의 대한민국’을 전남이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동구 국민체육센터 오늘 재개관·증축공사 마무리

광주 동구는 산수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6일부터 재개관한다고 5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시비 등 예산 24억7000만원을 투입해 체육센터 증축공사를 진행했다.

2011년 최초 개관 시 사업비 부족으로 건립하지 못했던 4층을 증축해 배드민턴, 농구, 탁구, 검도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과 문화교실, 화장실, 샤워실 등이 들어서게 됐다.

서구, 저개발국가 신생아 살릴 모자뜨기 캠페인

광주 서구 드림스타트는 최근 아프리카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저개발국가의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모자뜨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부모들이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국가에 보낼 털보자를 직접 만들면서 의미를 더했다.

각자의 재능으로 만들어진 모자는 인큐베이터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이용하기 어려운 아기들의 체온을 높여줘 지체온, 감기, 폐렴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

아동 부모들이 만들어준 신생아 모자는 1월 중순에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구 “복잡한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광주 남구는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및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 전화상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구는 3일 “생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영세 사업자와 취약계층,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에게 생활 속 세무 고민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지난해 연말 관내 16개동에서 활동할 마을세무사 10명을 위촉, 올해부터 내년 연말까지 2년간 국제 및 지방세에 대한 상담과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북구,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뽑혀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 선정은 소속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장려하고자 실시됐다.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된 가운데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북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는 적극행정 추진 경험과 성과를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분야별(적극행정일반, 법제개선, 민책 등) 전문가 컨설팅과 적극행정 관련 공모사업 우선 고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김애리 지방부이사관, 광산구 부구청장 취임

2일 김애리 지방부이사관이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2020년 광산구 시무식에서 부구청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광산구 여성 첫 부단체장으로 취임한 김 부구청장은, 취임사에서 “광산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은 광산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참여와 자치 그리고 복지의 대표도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방자치가 시민행복에 이바지해야 할 때를 강조한 김 부구청장은 “여러분과 함께 광산의 매력요소, 품격요소, 품격요소를 찾아 내 시민들의 이로움으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택 기자

전남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본격 유치 나서

2013년 성공 개최 발판... “도심 전체가 박람회”



전남도와 순천시, 국제 원예생산자협회(AIPH)KOREA는 3일 순천시청에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업무협약’을 하고, 글로벌 관광객 유치와 정원산업 선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3일 순천시, 국제 원예생산자협회(AIPH) KOREA

와 순천시청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남도·순천시가 공동 개최하며,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 AIPH 최종 승인은 개최 신청서 제출 후 오는 2월 AIPH 현장 실사를 거쳐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AIPH 총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날 3개 기관은 순천만국가정원이 세계 대표 정원으로서 도약하고 글로벌 관광객 유치와 정원산업 선도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해마다 500만명 이상이 순천을 방문, 대한민국 정원생태수도가 됐다”며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에선 성숙한 전남 정원의 세계화로 동북아 정원문화·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한정승인공고

파산속인 망 이정훈[1985.02.10생, 2019.10.21. 사망, 최후주소 광주서구 화성로 105, 203동205호(쌍촌동, 빛고을파크)]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2019.11.28. 광주가정법원 2019년단185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12.20.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재산상속한정승인에 따른 민법제1032조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 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9년단1853상속한정승인
공고인: 이광철
전남 나주시 평산혁신길 36(평산동)
한정승인수리일: 2019.12.20.
공고기간: 2019.12.31.부터 2020.03.02. 까지(2개월 이상)
신고 장소: 광주 동구 지산로 71-1(자산동) 법무사 조기혁 사무소
전화: 062-236-1255, 1257
2019.12.3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세력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끼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에 지원합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남노동노동위원회, 전라남도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노동위원회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